

## 9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해양유물, 무인도서 선정

- 이달의 수산물로 미꾸라지·문어를, 어촌여행지로 선유도·소돌마을을, 해양생물로 칠면초를, 등대로 연평도등대를, 해양유물로 표해록을, 무인도서로 토끼섬을 각각 선정

### ① 이달의 수산물 - 미꾸라지, 문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이달의 수산물로 미꾸라지와 문어를 선정하였다.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은 미꾸라지 맛이 가장 좋은 계절이다. 미꾸라지는 한문으로 '추(鰯)' 자를 쓰는데, 이는 물고기 '어(魚)'에 가을 '추(秋)' 자가 합쳐진 한자로, 가을 미꾸라지가 통통하고 맛이 좋아 이름 붙여졌다는 설이 있다. 레티놀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미꾸라지는 주로 찌개로 먹으며, 탕, 튀김, 전골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문어는 예로부터 제사상에 올릴 만큼 귀한 수산물로 여겨졌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어를 살짝 익혀 숙회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스페인에서는 약한 불에 오래 삶아 감자와 함께 먹는 '뽕보'라는 요리로 즐겨 먹는다. 문어는 타우린과 셀레늄 등이 풍부하여 피로를 해소하는 데도 좋다.

이달의 수산물을 비롯한 수산물 관련 정보는 어식백세(<https://blog.naver.com/korfish01?proxyRefere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전북 군산시 선유도마을 강원 강릉시 소돌마을



갯벌체험



소돌마을(BTS 정류장)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로 아름다운 풍경과 시원한 바다를 바라보며 해안 도보 여행을 할 수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선유도마을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소돌마을을 선정하였다.

전라북도 군산시에 있는 선유도어촌체험휴양마을은 섬의 군락, 고군산군도를 감상하며 구불구불 우거진 숲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구불 8길’ 둘레길이 있어 산책하기에 좋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고운 자갈로 이루어진 옥돌해변이 나오는데, 자갈들이 파도와 부딪히며 내는 잘그락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또한, 서해의 갯벌을 만날 수 있는 갯벌체험, 선상낚시체험 뿐만 아니라 선유도해수욕장에서 집라인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에 있는 소돌어촌체험휴양마을은 최근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해진 소돌해변부터 소돌항, 아들바위공원까지 볼거리가 다양하다. 소돌해변에서 4분 정도 걷다보면 나오는 소돌해안일주 산책로에서는 기암 괴석과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답고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마을에서는 푸른 동해에 둥둥 떠서 바다를 감상할 수 있는 투명카누체험, 강릉 커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커피를 내려보는 바리스타 체험 등도 즐길 수 있다.

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관광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com](http://www.seantou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③ 이달의 해양생물 - 칠면초



칠면초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해양생물로 칠면초를 선정하였다. 칠면초의 얼굴처럼 붉게 변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칠면초는 우리나라 갯벌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염생식물이다.

칠면초는 명아주과의 한해살이풀로, 주로 서·남해안의 펄갯벌 등에서 무리를 지어 자라며, 8~9월 사이 줄기마디에 2~10개의 작은 꽃을 피운다. 초기에는 녹색 또는 선홍빛을 띠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짙은 붉은 빛으로 물들어 가고, 가을이 되면 해안가에 붉은 융단을 펼쳐 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칠면초의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뿌리를 제외한 식물체는 한방 약재로 쓰는 등 칠면초는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칠면초와 같은 염생식물들이 생육하는 연안습지가 바다의 탄소 흡수원 '블루카본'으로 떠오르며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칠면초를 비롯한 해양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http://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이달의 등대 -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도등대

	
연평도 등대(출처: 해양수산부)	연평꽃게(출처: 인천시 옹진군청)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등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연평도에 위치한 ‘연평도등대’를 선정하였다.

연평도등대는 연평해역으로 몰려드는 조기잡이 어선들의 안전한 항해를 돕기 위해 1960년 3월에 첫 불을 밝혔다. 이후 1974년 7월에 소등되었다가, 재정비를 거쳐 약 45년 만인 2019년 5월에 다시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연평도등대가 있는 대연평도에서는 썰물 무렵 조개, 게, 낙지 등을 잡을 수 있는 갯벌체험을 해볼 수 있다. 또한 연평도 주변 해역은 서해 대표 꽃게 어장으로, 산란기를 거친 가을 꽃게는 껍데기가 단단해지고 속살이 차올라 뛰어난 맛과 풍부한 영양을 자랑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 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 ([lighthouse-museum.or.kr](http://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등대 주변 관광정보는 옹진군 관광문화 누리집([ongjin.go.kr/open\\_content/tour/](http://ongjin.go.kr/open_content/tour/))에 소개되어 있다.



## ⑤ 이달의 해양유물 - 표해록[漂海錄]



최부(崔溥, 1454~1504) | 조선 18세기 후반 | 종이 | 19.2×24.5cm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표류 기행문학인 '최부의 「표해록」'을 선정하였다.

「표해록」은 1488년 최부 일행 43명이 제주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중국 절강성에 표착(漂着)한 후 무사히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생생하게 정리한 중국 기행문이다. 최부는 조선 성종 연간의 문신으로, 35세에 제주에 '추쇄 경차관(推刷敬差官)'이란 관직으로 부임하였다. 1488년 최부는 부친상을 당해 고향인 나주로 돌아가던 중 표류하여 17일 만에 중국 절강성에 도착하였다. 최부 일행은 중국에서 해적에 잡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5개월 만에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최부는 조선인 최초로 중국의 강남과 강북, 요동지역을 두루 살핀 인물로서 왕의 명으로 '중조문견일기(中朝聞見日記)'를 남겼고, 이것이 「표해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18세기 후반 최부의 후손들이 엮은 문집 「금남집(錦南集)」에 실린 판본을 소장하고 있다.

최부의 「표해록」은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역사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는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 ⑥ 이달의 무인도서 - 문주란과 남방큰돌고래의 터전, ‘토끼섬’



토끼섬 전경(사진: 제주관광공사)



문주란 자생지 군락(사진: 제주관광공사)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한 ‘토끼섬’을 선정하였다.

토끼섬은 육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으며, 고도 4.7m, 길이 약 100m, 면적 3,174m<sup>2</sup>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작은 무인도서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명칭은 ‘난도’였는데, 바깥쪽에 있는 작은 섬이라는 뜻의 ‘난들여’라고 불리다가 이곳에 토끼를 방사하면서 ‘토끼섬’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섬을 손상시키던 토끼들은 현재는 살지 않는다.

토끼섬은 꽃이 필 때면 향기가 천리 밖까지 퍼진다고 하여 ‘천리향’이라고도 불리는 ‘문주란’이 뒤덮고 있다. 문주란꽃이 8월 중하순에 만개하면 섬 전체가 하얀 토끼처럼 보이는 것도 토끼섬이라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 연평균 14℃가 되어야 자생할 수 있는 문주란의 국내 유일한 자생지인 토끼섬은 1962년 <천연기념물 제19호>로 지정되었고, 해양보호생물 거머리말이 서식하고 있는 주변해역은 <해양보호구역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토끼섬 주변해역은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몰려드는 덕분에 스노클링을 즐기기 좋은 장소이다. 또한, 토끼섬이 있는 제주도 동쪽의 조천~하도리 앞바다는 대정읍 모슬포 앞바다와 함께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지이다.

토끼섬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 (<http://uii.mof.go.kr>)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비짓제주 누리집(<https://www.visitjeju.ne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총괄>	대변인 홍보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국일 (044-200-5013)
		담당자	사무관	나유성 (044-200-5017)
<수산물>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구도형 (044-200-5440)
		담당자	서기관	김윤이 (044-200-5447)
<어촌마을>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어항과	책임자	과 장	김정화 (044-200-5650)
		담당자	주무관	박윤범 (044-200-5652)
<해양생물>	해양환경정책관 해양생태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10)
		담당자	사무관	최재용 (044-200-5315)
<등대>	해사안전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유은원 (044-200-5870)
		담당자	사무관	조용훈 (044-200-5878)
<해양유물>	해양정책관 해양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신 (044-200-5220)
		담당자	사무관	우민아 (044-200-5232)
<무인도서>	국제협력정책관 해양영토과	책임자	과 장	임채호 (044-200-5350)
		담당자	사무관	장민철 (044-200-5355)



9월  
이달의 수산물

## 미꾸라지

수산물



레티놀과 필수지방산이 풍부한 미꾸라지는 탕과 튀김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출처 : 국립수산물연구원

수분

(Moisture)

74.02 g

단백질

(Protein)

15.9 g

지방

(Fat)

7.5 g

회분

(Ash)

2.84 g

에너지

(kcal)

138 kcal

칼슘

(Calcium)

975 mg

인

(Phosphorus)

554 mg

철

(Iron)

4.3 mg

레티놀

(Retinol)

11 µg

류신

(Leucine)

1,201 mg

라이신

(Lysine)

1,306 µg

필수지방산

(Essential)

2,351 mg



9월  
이달의 수산물

# 문어

문어



문어는 타우린과 셀레늄, 베타인류가 풍부하며 숙회, 튀김, 샐러드 등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분

(Moisture)

84.4 g

단백질

(Protein)

12.7 g

지방

(Fat)

0.2 g

회분

(Ash)

2.6 g

에너지

(kcal)

56 kcal

칼슘

(Calcium)

23 mg

인

(Phosphorus)

160 mg

철

(Iron)

0.5 mg

타우린

(Taurine)

695 mg

아르기닌

(Arginine)

754 mg

셀레늄

(Selenium)

63 µg

베타인류

(Betaine)

554 mg

20230901

## 참고 2

## 최근 5년간 미꾸라지, 문어 생산량 및 수출입량

### □ 생산량

(단위 : 톤)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미꾸라지	668	645	690	678	690
문어	9,744	9,808	8,988	9,239	7,729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2023.08.24기준

### □ 수출 · 수입량

(단위 : kg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미꾸라지	수출	1,646	1,202	1,719	6,165	6,510
	수입	8,719,917	8,541,802	7,859,771	8,503,046	8,486,246
문어	수출	196,143	550,352	127,640	215,365	212,032
	수입	12,673,788	12,278,796	10,569,852	9,697,257	11,192,744

\* 자료 :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2023.08.24..기준

魚食 아식백세 100세

9월 이달의 수산물

지금 먹어야 더 맛있는  
싱싱한 제철 수산물  
미꾸라지와 문어



### 미꾸라지

이름도 추어, 가을 보양식 미꾸라지  
예로부터 영양이 많아 가을 보양식으로  
유명한 미꾸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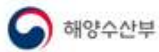
### 문 어

촉촉하고 귀한 수산물 문어  
타우린이 풍부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인 문어!

해양수산부

우리바다, 우리식탁 안전합니다





2023년 09월  
**이달의 어촌 여행지**



**FIPA** 한국어촌여행공단



**고군산군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볼거리가 가득한  
선유도어촌체험휴양마을**

선유도마을은 바지락을 잡는 갯벌체험, 우럭과 광어 등을 잡는 선상 낚시 체험이 있다. 집라인을 탈 수 있는 선유도해수욕장,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섬 둘레길(구불8길), 파도가 옥돌에 부서지며 나는 소리와 함께 여유를 즐기기에 좋은 옥돌해변까지 주변 관광지가 가득 하여 가족, 친구와 추억을 쌓기 좋다.

- **체험** : 갯벌체험, 선상낚시체험
- **먹거리** : 노래미, 우럭, 광어
- **주변 관광지** : 옥돌해변, 무녀도, 선유도해수욕장

○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3길 43  
○ 063-464-5556    [www.선유도어촌체험마을.kr](http://www.선유도어촌체험마을.kr)

**푸른동해와기암괴석을보며산책할수있는  
소돌어촌체험휴양마을**

소돌마을은 투명카누체험을 하며 맑은 동해를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어촌계 작업 커피숍에서 커피를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이 가능하다. 주변 관광지로는 쥐라기 시대에 솟아오른 기암괴석 풍경이 장관인 아들바위공원, 드라마촬영지로 유명한 소돌항과 소돌해변 등이 있다.

- **체험** : 투명카누체험, 핸드드립체험
- **먹거리** : 문어, 오징어, 멍게
- **주변 관광지** : 아들바위공원, 소돌항, 소돌해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로1968-6  
○ 033-662-6492    [www.소돌어촌체험마을.kr](http://www.소돌어촌체험마을.kr)



**이달의 어촌 여행지 방문하면  
보냉백 굿즈를 드립니다**



**바다여행 누리집**  
[www.seantour.kr](http://www.seantour.kr)





지켜주세요!!  
이달의 해양생물

다시 도약해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이 됩시다

**지구를 식혀주는 붉은 용단**

철면초의 얼굴처럼 붉게 변한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철면초는 우리나라 갯벌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염생식물이다. 염야주과의 한해살이풀로, 자라나는 초기에는 녹색 또는 선홍빛을 띠지만 자라면서 조금씩 짙은 붉은빛으로 물들어 가다 가을이 되면 해안가에 붉은 용단을 펼쳐 놓은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한다.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뿌리를 제외한 식물체는 한방 약재로 쓰는 등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철면초와 같은 염생식물들이 생육하는 연안습지가 바다의 탄소 흡수원 '블루카본'으로 떠오르며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분포 및 생태적 특성**

주로 서·남해안의 필갱벌 또는 기수역의 조간대에 무리지어 자라며, 8~9월 사이 줄기마디에 2~10개의 작은 꽃을 피운다.

주요 분포지

*Suaeda japonica* Makino

우리가 보호해야 할  
**철면초**

해양수산부

KOEM  
해양환경공단



### 연평도등대

2023년 9월 이달의 등대로 인천광역시 옹진군 연평면에 위치한 '연평도등대'가 선정되었다. 연평도등대는 해일 평균 35cm마다 한 번씩 등대 불빛을 반짝이며, 인근 해역을 지키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연평도등대는 조선시대 연평도 해역에서 조기가 발견되고 한국에서 볼래온 조기가 어선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1960년 건립되었다. 이후 1974년 7월에 소용되었다가, 재항해를 거쳐 약 45년 만인 2019년 5월에 다시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

연평도 앞바다는 청정, 청정, 자연치유 등의 특색 있는 풍경과 함께 조수처럼 찬란하다. 바다가 깊지 않아서 열물 부양에는 조개, 게, 낙지 등을 먹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연평도등대 주변에는 등대를 중심으로 꾸민 등대공원과 조가역사관이 있다. 또한, 인근의 구리동 해변, 별을 바치는 바다와 숲의 조화로 산책하는 재미가 있다.



연평도등대를 포함한 이달의 등대 정보는 국립 등대박물관 누리집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옹진군 관광문화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변 관광지

- 연평도 평화공원
- 바비콜 길
- 아이스크림배
- 등대공원
- 조가역사관
- 송현사
- 구리동 해변
- 달항아리 전시관



### 주변 먹거리

새해 대보름 꽃게 어장으로 불리는 연평도! 가을이 시작되면 연평도 바닷속에도 꽃게 맛이 물기 시작한다. 가을 꽃게는 얇고 단단하고 속살이 꽉 차있고 수계가 으뜸이다. 제철을 맞은 꽃게는 부드러운 맛과 달콤한 감칠맛이 가득해 국물이 시원한 동계탕과 찌개 요리로, 달콤한 밥도둑 간장게장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이달의 등대 이벤트

2023. 1. 1. - 12. 31.

1/ 블로그 포스팅 이벤트

포스팅하고 대박 당첨! 100% 당첨!

- 이달의 등대 방문 후기 포스트 중, 우수 포스트를 선정하여 10개 등대 방문 경비 지원(국민관광진흥금 등 지원) 및 상품 지원

2/ 모바일 등대스마트 투어 2023 시리즈 오픈!

스마트폰에 2023 시리즈 '이달의 등대'를 받아보세요!

- 스마트 투어 가이드를 누구나 무료로 등대 기념품 수령

- \* 등대 방문 및 이벤트 시간은 등대마다 다르므로, 국립 등대박물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 2023-이달의 등대는 1월 31일 오전 12시까지 마감되며, 이달의 등대 10개 등대 중 10개 등대입니다. 1월 1일에 등대 방문을 마감하여 1월 31일까지 마감합니다.





해양유물을  
소개해 주세요  
<https://www.inmmn.or.kr>

###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우리 해양 역사의 소중한 이야기와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양유물 이야기를  
소개해 주세요.

#### ☎ 기쁨문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044-200-5232

#### 📍 기쁨대방

여명사, 해양교류(해운·항만),  
해양예술, 해양민속, 해양과학,  
해양산업, 각종 어업·항해도구 등  
다양한 해양 관련 자료



최부(崔溥, 1454~1504) | 조선 18세기 후반 | 종이 | 19.2×24.5cm |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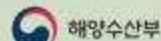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표류 기행문학인 최부의 「표해록」을 선정하였다.

「표해록」은 1488년 최부 일행 43명이 제주 앞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중국 절강성에 표착(漂着)한 후 무사히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생생하게 정리한 중국 기행문이다. 최부는 조선 성종 연간의 문신으로 35세에 제주에 추쇄감차관(推刷敬差官)이란 관직으로 부임하였다. 1488년 최부는 부친상을 당해 고향인 나주로 돌아가던 중 표류하여 17일 만에 중국 절강성에 도착하였다. 최부 일행은 중국에서 해적에 잡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등 고초를 당한 후 5개월 만에 압록강을 건너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최부는 조선인 최초로 중국의 강남과 강북, 요동지역을 두루 살핀 인물로 왕의 명으로 「중조문견일기(中朝問見日記)」를 남겼고, 이것이 「표해록」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18세기 후반 최부의 후손들이 엮은 문집 『금남집(錦南集)』에 실린 판본을 소장하고 있다.

최부의 「표해록」은 2024년 개관 예정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해양교류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의 해양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기증받고 있다.



대한 해양문화유산  
함께 나누는 문화유산



다시 도착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해양수산부

별도의 사진  
생태에 관한 보고

2023년 9월  
이달의 무인도서



생태·환경·관광·문화·농업·해양수산부



토끼섬

구좌읍

제주특별자치도

문주란과  
남방큰돌고래의 터전

# 토끼섬

해양수산부는 9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 위치한 '토끼섬'을 선정하였다.

토끼섬은 고도 4.7m, 길이 약 100m, 면적 3,174㎡ 천무덤으로 이루어진 작은 무인도서로, 육지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래 명칭은 난도였는데 배깁쪽에 있는 작은 섬이라는 뜻의 난돌이라고 불리다가 이곳에 토끼를 방사하면서 토끼섬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또한 토끼섬은 문주란 자생지로 꽃이 만개하면 섬이 하얀 토끼처럼 보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토끼섬은 국내 유일한 문주란 자생지이다. 문주란은 햇볕이 잘 드는 모래밭에서 자라는 수선화과의 다년생 식물로, 7월-9월이면 흰색 꽃이 피는데 꽃잎기가 먼 곳까지 퍼져 '천리향(千里香)'이라고도 불린다. 문주란은 연평균 14℃가 되어야 자생할 수 있는데, 토끼섬이 여기에 속한다. 이로 인해 토끼섬은 1962년 「천연기념물 제19호」인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로 지정되었으며, 주변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거머달맞이 서식해(해양보호구역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토끼섬은 남방큰돌고래를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제주도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는 약 100-120마리로 추정되는데, 대정읍 모슬포 앞바다와 토끼섬이 있는 동쪽의 조천-하도리 앞바다가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이다.

토끼섬을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에서, 인근 관광 정보는 빙치제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도 4.7m, 길이 약 100m, 면적 3,174㎡

거머달맞이 서식해 (해양보호구역 제13호)

천연기념물 제19호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남방큰돌고래의 주요 서식처

www.mot.go.kr  
blog.naver.com/kareneof  
www.facebook.com/iroofon/photos

Jeju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사진 출처: 제주관광공사

제주도 관광청